

5) 불교음악

불교음악은 흔히 범패, 범음 또는 어산이라고 한다. 이 범패에는 일반 승려들이 부르는 염불 또는 고사소리와 범패를 전문으로 하는 승려들이 부르는 홑소리(한시로 노래하는 것으로 음역이 좁고, 7~10분 정도 걸린다)와 깃소리(한문이나 인도어로 노래하는 것으로 음역이 넓고, 30분 정도 걸린다), 그리고 화청과 회심곡 등이 있다. 현재 순천지역에는 불교음악만을 전문으로 하는 승려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송광사와 선암사 등 훌륭한 사찰이 있는 순천지역에서 불교음악이 연행되지 않았다는 생각은 할 수 없다.

흔히 불교음악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인식되어 지나쳐버린 예불드리는 소리와 범종과 범고, 운, 목어 등이 어우러지는 예물(사물)의 연주 또한 불교음악의 기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송광사의 예불소리는 1988년 작곡가 김영동에 의해서 선(禪)이라는 제목으로 음반이 취입되어 국악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태고 총림인 선암사에서도 송광사와 마찬가지로 장엄한 예불이 매일 두 번씩 거행되고 있으며, 큰 법회 때 걸어놓는 선암사의 괘불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크기가 으뜸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순천지역과 전남지역에는 전문 범패승이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조선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전남지역의 각 사찰에 범패승이 가장 많이 기거했음을, 조선시대 범패승의 계보를 통해 알 수 있다. 1748년(영조 24) 범패의 대가 대휘화상(大輝和尚)에 의해 쓰여진 『梵音宗譜』의 범패승 계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대 국융(國融): 세종 때 활약
- 제2대 응준(應俊)
- 제3대 혜운(惠雲)
- 제4대 천휘(天輝)
- 제5대 연청(演淸)
- 제6대 상환(尙還): 임진왜란 이후 활약
- 제7대 설호(雪湖)
- 제8대 운계당법민(雲溪堂法敏): 효종 때 활약
- 제9대 혜감(慧鑑)
- 제10대 순영(洵暎)
 - 유민(有敏)
 - 유평(有平)
 - 채청(采淸): 봉암사
 - 찬오(贊梧): 남평 불회사
 - 성각(性覺): 능주 천불산, 개천사
 - 축찰(竺察): 해남 대흥사
 - 대휘(大輝): 장흥 보림사
 - 이진(怡眞)·풍식(豊湜): 낙안 징광사
 - 시명(始明): 해남 미황사
 - 체운(體雲): 흥국사
 - 융학(融學)·재방(再芳): 순천 선암사

각선(覺禪): 구례 화엄사

도인(道認): 순천 대광사

연기(演機): 고흥 금담사

제11대 계환(戒還)

제12대 홍해(洪海)

위 계보에서 보았듯이 대취화상이 활약했던 영조시대의 제10대 범패승들이 모두 17명인데, 그 중에서 11명이 전남지역의 사찰에서 활약했다. 특히 선암사와 대광사, 낙안 징광사 등에서 활약한 범패승만도 5명이나 된다. 이로써 순천지역이 범패승들의 보고였음을 알 수 있다.